

한인회장 인사



2013년 계사년 새해에 교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지난 12월 22일 13, 14대 임기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후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한인회장 초청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두남 한인회장은 임기동안 행사때마다 수고해 주신 임원 여러분과 이사회 기타 모든 기관과 단체 교역자 협의회, 천주교회 및 '광야의 소리'를 통해 매달 한인회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움주신 감리교회와 김기천목사님, 한인 각 마켓과 식당, 후원자 여러분과 라스크루시시지역에서 많은 활동해 주신 조규자 부회장님과 김명주 이사님, 고문목사로 수고해 주신 노강국목사님(산타페, 로스알라모스)과 김의석목사님 이름없이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뉴멕시코주 한인사회가 지역에서

-4페이지에서 계속

지역 주민과 함께 한 성탄의 밤

"화목"을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번 201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알버커키에 사는 주민들의 화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12월 23일 7시 30분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2012년 성탄 음악회"였다.

12월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 철쭉 같은 어둠을 헤치면서 교회 가까이 다가서자 반짝거리는 불빛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주차장을 안내하는 손전등 불빛이었다. 주차장에는 이미 많은 차들이 와 있는 것 같았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차를 주차시키고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원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순서지를 나눠준다. 실내는 형형색색의 풍선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순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약간의 긴장감이 도는 듯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서먹함도 있었으리라.

-2페이지에서 계속

교회 의자에는 미리 자리잡은 한인들로 꽉 차 있었다.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기관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제15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선거공고

2013년 1월 31일

제 15대 뉴멕시코주 한인 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하오니 차기 회장직에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후보 등록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회장 입후보 자격

한인회에 등록되고 2012년 10월 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정 회원

2. 입후보자 등록 서류

(가) 입후보 등록서 1 통(한인회관비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나)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등록서에 포함 되었음)

(다) 입후보자 등록비 3000불 (현금 또는 은행 보증 수표)

(라) 선거후 비당선인에게는 300 불을 제외한 등록비는 환불함

3. 등록 일시 및 장소

2월 1일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장소는 뉴멕시코주 한인회관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함)

4. 투표 일시 및 장소

일시: 2월 23일 오후 3 시

장소: 한인회관 (정기 총회를 겸함)

5.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선거 관리 위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선거 관리 위원

최 진: 전화번호 505-228-9062 (khanjc@aol.com)

손말레: 전화번호 505-280-4633 (malmije@gmail.com)

김준호: 전화번호 505-821-3561 (jhknm@q.com)

이경화: 전화번호 505-237-8688 (khlhm@comcast.net)

*지난 1월 26일 정기이사회 모임에서 15대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3, 14대 한인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온 김두남 회장이 오는 3월말을 끝으로 임기 마감입니다. 따라서 한인회 이사회에서는 회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한인회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들이 한인회원들에 의해서 추천되기를 바라고 추천된 분은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15대 회장선거 입후보에 등록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이루어져서 한인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15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진

이번 호에 실린 글

새로 소신 이준수 목사님 강혜숙 사모님 -----2

나그네집 이정길(전남대학교 명예교수/작가) --3

한국학교 -----4

한국학교장 인사말 -----5

서버사회소식 -----5

주님의 교회 소식 -----5

기막힌 숙연 사니면 섭리? 김준호 장로 -----6

뉴멕시코 한인 상공인 소식 -----8

천막교회에서 시작한 나의 하모니카 글: 이경화 8

동경에서 온 소식 박신배 목사 -----11

순서는 지역 사회에 있는 한인 단체장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한인회 민병희 부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상공인회 김철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2013년 신년에도 각 한인단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주민들을 섬기는 귀한 단체가 되기를 기원한다.



뉴멕시코주 한인 목회자들의 축하송이 있었다. 일곱 분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절묘한 화음으로 뉴멕시코 한인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를 불렀다. 이어 어린이들이 나와서 핸드벨을 들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였다. 음과 박자를 맞추어가면서 “고요한 밤”과 “기쁘다 구주 오셨다”를 귀엽게 연주해주었다.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어울려서 부르는 혼성 사중창이 있었다. 혼성으로 이루어진 이 팀은 “What Child is This”와 “Do You Hear what I Hear”를 들려주었다. 이어 다섯 명의 여성들로 이루어진 중창이 있었다. 이들은 “Silent Night, Oh! Holy Night”를 불렀다.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연극을 준비했다. “No Room at the Inn”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탄생 때의 상황을 재현해서 보여주었다. 배우들은 모두 맡은 역할을 진지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예수께서 탄생하신 여관 집 딸의 역할이 매우 돋보였던 연극이었다. 이어 남성들만 나와서 불렀던 “Christmas Carol Medley” 또한 청중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남자들의 목소리만 아니라 피아노와 드럼 외에도 하모니카까지 곁들여서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메들리로 들려주었다.



한미 침례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낭송하면서 감동 깊은 예화를 소개해 주었다. 낭송하는 동안에 사모님과 딸이 함께 은은하게 피아노를 연주해주어서 낭송에 감동을 더해주었다. 이어서 어린이들이 나와서 바이올린, 첼로, 색소폰, 드럼, 플루트를 들고 “Christmas Sing-A-Long”을 연주했다.

모든 악기를 맞추려면 꽤나 많은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중들에게 인기를 끈 것은 다음 곡 “Christmas in the Kitchen”이었다. 부엌에서 쓰는 도구들이 등장했다. 특히 어머니들이 이 도구들을 들고 연주에 참가했다. 어머니들은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도구들을 두들겼다. 부엌 도구를 두들길 때 나오는 소리가 어린 아이들이 연주하는 악기들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음악을 만들어냈다. 연주가 끝날 때에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강선희 김기천 목사의 이중창이 있었다.



깊은 음색을 지닌 색소폰 독주 또한 일품이었다. 강혜숙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와 함께 “You Raise Me”를 연주하였다.

이날 순서의 클라이맥스는 역시 성탄절 칸타타에 있었다. 이 칸타타는 John E. Boalt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순서대로 곡으로 엮어놓은 노래를 이태희가 한글로 편곡한 것이다. 아홉 개의 곡들을 연속으로 불렀으며 중간에 낭독이 있었다. 이 많은 곡들을 틀린 곳이 없이 아름답게 화음을 이루어가며 때로는 애처롭게 때로는 힘차게 불렀다. 본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르기기로 했지만 숫자로 따지면 두 교회가 연합해서 구성된 성가대라고 한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는 모두 친교실로 가서 감리교회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각 교회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천주교회에서 많이 참석하였다.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알버키키 연합감리교회를 가득 채웠던 이번 음악회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2013년도에는 더 많은 한인들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새로 오신 이준우 목사님 강혜숙 사모님

*교역자협의회 소속 이준우 목사님 소개합니다. 이준우 목사님은 한국 예장(통합) 목사로 근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으로서 지난 해 9월에 따님 가족이 살고 있는 이곳 알버키키로 이주 하셨습니다. 2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미얀마의 갈레이요, 양곤, 그리고 다짜렉 이 세 곳에서 사명자성회(현지 목회자들을 말씀과 기도으로 훈련시키는)를 인도하십니다.

사진은 뉴멕시코 교역자협의회 정기모임에서선교지로 떠나시기 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모습



-에 세 이-

나그네쥐

이정길(전남대학교 명예교수/작가)

레밍 lemming은 북극과 그 주변의 추운 곳에서 사는 동물이다. 생쥐와 비슷한 작은 설치류로 몸길이 8 ~ 15센티미터에 꼬리 길이는 약 1.5센티미터, 무게는 30 ~ 110그램이다. 툰드라, 삼림 지대, 늪지대, 목초지 등 습한 곳에서 주로 풀잎이나 새싹을 먹고 살며, 뿌리와 알뿌리를 먹기도 한다. 족제비, 여우, 올빼미, 늑대의 먹이 감이지만 5주마다 평균 8마리의 새끼를 낳는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수가 3 ~ 4년을 주기로 크게 불어난다. 수가 불어남에 따라 먹이가 부족해지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먹이를 찾아 다니기 때문에 '나그네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동할 때면 나그네쥐는 집단을 이루어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떼를 지어 먹이를 찾아 다니다가 어느 날 앞에 있는 녀석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뒤에 있던 녀석들도 덩달아 뛰는 뒤에서 맹렬하게 쫓아오는 놈들의 기세가 두려워 앞의 쥐들은 더 힘껏 달리게 되고, 이에 뒤질세라 뒤의 쥐들 역시 온 힘을 다해서 뛰는 것이다. 이 황당한 질주는 절벽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이르러서야 끝을 맺는다. 일제히 절벽에서 뛰어내려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다. 이 광경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나그네쥐가 무리를 지어 자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레밍의 이런 행태는 수가 주기적으로 불어나면 자연서식처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먹이나 피난처를 찾아 사방으로 흩어지는 다른 설치류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이 무리 지어 죽는 실제적인 이유는 시력이 형편없이 나빠서 쉽게 건널 수 있는 작은 강과 익사할 것이 너무나 뻔한, 빙하가 만든 북유럽해안의 육지 깊숙이 들어간 좁고 긴 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들의 생태는 맹목적으로 어떤 집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속어로 '레밍'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만들었다.

지난 2006년이던가, 경상북도 상주 시민운동장에서는 콘서트가 열리게 되어 있었다. 계절도 좋은 5월에 있는 축제를 즐기려고 모여든 3만의 인파가 문이 열리자 앞다투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밀치락달치락하는 바람에 난장판이 되어 11명이 깔려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참사가 벌어졌다. 천재지변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재난이어서 분노할 일이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참으로 명쾌하게 밝혀 알려준 언론의 행태가 또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하나같이 시, 경찰, 행사 대행업체, 방송사 등 모든 관련기관의 소홀한 행사준비로 발생한 인재였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그날 운동장 바로 옆이 집이어서 상황을 잘 지켜볼 수 있었다는 한 여고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가장 큰 원인은 이기적인 팬들과 일부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극성 팬들은 앞 자리를..." 이 참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다. 먼저 시민들이 사회의 기본질서를 지켰더라면 이런 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한 사람들이었다더라면 열한 명이나 깔려 죽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상 사람을 깨우쳐 인도할 만한 기관이라서 비유적으로 사회의 목탁이라 부르는 언론의 행태는 어땠는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당시 사람들의 행위는 자신들이 스스로 반성할 줄 알고 들추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만에 일이라도 여고생이 지적한 것을 언론이 몰랐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앵무새처럼 다른 언론의 말을 뇌었다거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너리즘에 빠져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면 그건 더 심각한 일이다 싶었다. 이런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만 같아 걱정되었다.

운동장에 먼저 들어가려고 난장판을 만든 구경꾼들과 뉴스를 먼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652-4627)

\$월모임: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http://cafe.daum.net/abq-catholic

뉴멕시코 성결교회 (Albuquerque)

전종철 목사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시간: 5:30 am (매일)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

주일예배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김의석 목사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일요일 10:30 am (한인회관)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장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전화 505-803-7716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렬 목사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시간: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성경공부및 기도회 \$매주 목요일 1:00 pm (교회에서)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331-9584

저 전달하겠다고 내용을 부실하게 처리한 언론이 내게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구경꾼이나 언론이나 모두가 경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왜 이겨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죽음의 질주를 하는 레밍의 행태와 너무 비슷해 보였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취들처럼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구나 싶었다. 나는 그때 문득 거기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날로 치열해져 가는 경쟁 시대에 살면서, 외계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채 그저 살다가 가는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이 죽음의 질주로 생을 마감하는 레밍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태어나서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것이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삶은 분명 그 이상일 터. 밝혀내야 할 신비도 있고, 풀어야 할 의문도 있으며, 찾아야 할 길도 있는 것이 삶 아니던가. 삶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삶에 대해 고민해보지도 않으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살아가는 안 된다고 믿는다. 삶의 의미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그리고 여기에 충실해야 하며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1페이지에서 계속

활발히 일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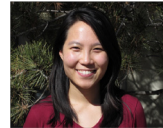


특히 수고하신 다섯 분들께는 La 신영성 총영사가 수여하는 감사장을 이정길교수, 김기천목사, 이옥주 홍보대사, 임넌시 부회장, 박연복 봉사부장님에게 수여하였고, 서남부 연합회 국승구 회장이 수여하는 감사장은 정지혜 한국학교 교사, 이은주 기획부장, 김두남회장

에게 수여되었습니다.



한국학교



한국학교가 1월 19일 토요일부터 개강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학기에 새로이 임명된 신미경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교장

2004. 9-2005. 5 캐나다 King's College University/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교환학생
2001. 3-2006. 2 가톨릭 대학교 국제학부 국제관계학과 졸업 (부총장상 수상-전공 수석)
2010. 1-현재 University of New Mexico, LLSS (Language, Literacy, and Sociocultural Studies) department,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석사 과정 재학
2006. 9-2009. 9 서울 강남 리딩타운 초, 중등부 영어 강사
2011. 2-2011. 5 뉴멕시코 San Jose Elementary School, reading/writing tutor
2011. 9-2012. 5 University of New Mexico, LLSS-Graduate Student Association secretary
2011. 8-현재 뉴멕시코 한국 학교 교사
2012. 1-2012. 5 UNM CELAC (Center for English Language and American Cultures) ESL 강사
2012 제 1회 뉴멕시코 한인 상공회 대학원생 장학생
2012. 5 현재 알버커키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설교 통역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Sun 4:00-9:30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Japanese Kitchen

제퍼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분, 6코스:40분, 8코스:50분)

모듬정식(텐포),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652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84.8937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한국학교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한국학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13년, 벌써 그 첫 달이 지나가고 이제 어느덧 따스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네요. 저는 올 봄 학기를 시작으로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신미경입니다. 알버커키 교민 여러분께 한국학교 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한국학교의 교육방침이나 운영에 대한 어떤 새로운 포부나 다짐을 표현 할 수 있을까 하고 한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그 무엇보다도 여러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교민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마음으로 현재의 제 자리에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09년 가을에 알버커키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 곳에서 첫 미국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알버커키가 곧 미국입니다. 이 미국 생활 첫 달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깊게 남아있는 기억은 고향인 한국과 내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리워 뉴멕시코 한인회관을 찾았던 일입니다. 그 날이 마침 수요일로 어버이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고, 여러 어르신들의 환영 속에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말하는 즐거움 가운데 정말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한국에 계신 제 조부모님 연배의 한 어르신의 생일이었던 지라, 식사를 거의 마쳐갈 무렵에 어르신의 딸이 케 과 꽃다발을 들고 잠시 한인회관에 들렀습니다. 30대 쯤으로 보였던 그 딸은 한국어를 전혀 말하거나 쓰지 못했고, 그래서 어머니께 드리는 생일카드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영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 낸 생일 축하 메세지가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딸이 원래 하고자 했던 사랑을 담은 멋들어진 생일 축하 문장이 아니라 한글 자음, 모음의 조악한 조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딸에게 영어로 뜻을 묻은 다음 다시 어르신께 그 뜻을 한국어로 통역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일 이후에도 이 곳 미국에서 만난 대다수의 한국 핏줄을 가진 아이들과 청년들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거나,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음 아픈 현실을 겪으면서 왜 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한인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잃게 되는 현실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저희 한국학교는 앞으로 한인 공동체를 비롯해 한국학교 학부모님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합해서 양질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보다 공고히 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더불어 귀한 자녀들을 꼭 한국학교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한국학교에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해주시고 새롭게 변화될 한국학교의 새 소식 업데이트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문의: 한국학교 505-271-1777, 신미경교장-505-453-9015

위쪽 두 사진(1)새학기 준비를 위한 교사 미팅. (2) 지난 1월 25일 (금)한국학교의 새학기와 함께 새롭게 임명된 신미경 교장 선생의 기획하에 이루어진 국어국문학과 전공 이은주씨의 한국



학교 교사 특강이 있었다. 경험을 통한 본인의 티칭방법과 여러 이론적인 과정을 배제한 가장 빠른 한글 습득과 말하기 쓰기, 읽기 그외 한국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었다. 이 이후에도 다양한 취지의 특강 및 세미나가 전문가들에 의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위쪽 사진: 10년동안 한국학교 교사로 봉사하신 정지예선생에게 수여된 감사장

한국학교 알림

한국학교 교사 수련회: 3월 2일(토)에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에서 파견되는 4명의 강사를 모시고 교사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어버이회소식

- 1월 9일부터 어버이회 수요 정기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아리랑에서 떡국으로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월 9일 구정에는 민명희 부회장님께서 점심식사를 후원합니다.
- 2월20일 수요일 어버이 모임에서 대보름잔치가 성대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정풍자, 이명교, 정종문, 정마리아, 최귀분님께서 쌀 50포대를 후원해 주시고 각 한인마켓에서는 오곡밥과 나물을 후원해 주십니다. 많은 어버이분들 참석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소식

*weekly Schedule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6am

*UNM(The University of New Mexico) Campus Mission Every Tues.

*성경공부매주 목요일 10:00am @ Church

*Homeless Mission Every Sat. 7:30am@ Coronado Park (2nd street)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Every Sun. 1pm @ church.

스시바를 매매 합니다

Los Alamos 의 Smith 마켓 안에있는

성업중인 스시바를

타주 이사 관계로 매매합니다.

가격 6만불

연락처: 505-506 7756

Susan Oh (수잔 오)

E-mail: susanmission@gmail.com

